

천국은 하나님의 집이므로 하나님만 들어 갈 수 있어

하나님의 자식이라는 긍지 가져야

“시작이 반이다.” 하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성령으로 거듭나려면 시작을 해야 되는데 무엇을 시작해야 되느냐 하면 바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식이라는 긍지를 항상 가져야 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자식이라는 긍지를 항상 품고 있으면 그 사람은 절반은 하나님인 거나 다름이 없습니다.

오늘날 이 세상 사람들이 죄가 뭘지 모르고 있는 것은 그 생각하는 주체 영이 마귀영인고로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나라는 주체의식이 마귀영이요, 나라는 주체의식이 죄의 영이요, 사랑의 영이요, 어둠의 영이요, 무식의 영인고로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귀의 영을 완전히 제거하고 하나님의 영이 나라는 주체의식이 되면, 이 세상에 모르는 것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성령으로 거듭나려면 여러분들이 나는 하나님의 자식인데 현재는 마귀에게 포로가 되어 있다는 사실을 명확하게 깨닫고 항상 나를 이기는 생활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 안에 있는 마귀를 내쫓아야

성경이나 불경에 “나를 항상 버려라.” “생명을 버리는 자는 얻을 것이요, 생명을 얻고자하는 자는 잃을 것이다.”는 말이 있는데 이 말씀은 여러분들이 성령으로 거듭나려면 나를 버려야 한다는 것이요, 나를 버린다는 것은 바로 마귀를 버린다는 것이요, 마귀를 하나님 집에서 내쫓는다는 말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귀를 내 쫓아야 것이 비는고로 빈 집에 하나님이 이사 들어올 수 있는 것이지 마귀가 살고 있는데 하나님이 그 집에 들어가서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영생의 소망과 영생의

망과 영생의 목적보다 더 큰 것이 이 세상에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영생의 희망과 영생의 소망과 영생의 목적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면, 끝까지 참고 견디는 그러한 저력이 거기서 수반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승리제단은 생명과일이 되는 이슬이 매일 같이 내리는 제단입니다. 끝까지 견디고 나오는 자는 영생을 선물로 받게 되며, 성령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이 되면 마귀를 이기고 나를 이기고 사망권세를 이기는 하나님이 되는 것입니다. 영원무궁토록 사는 영생의 하나님이 된다는 것은 바로 구세주 하나님이 되어서 이 세상 모든 죽어가는 사람을 다 살리는 존재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구세주 하나님이 되어야

이 사람 하나만 구세주라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는고로 이 세상 사람들이 다 구세주가 되려면 먼저 승리제단에 나오는 여러분들이 구세주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구세주 하나님이 되려면 구세주 하나님이 될 후보자라는 긍지를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구세주 하나님이 될 후보자라는 긍지를 갖는다면 도둑질 할 수도 없고, 하나님이 될 긍지를 가진 사람이라면 악한 마음을 가질 수도 없고, 미워하는 마음을 가질 수도 없는 것입니다.

끝까지 참고 견디면 영생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끝까지 견디고 참기만 참으면 분명히 영생을 얻을 뿐만 아니라 분명히 여러분들은 영생할 수 있는 하나님이 되어 하늘나라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구세주 이긴자가 나오기만 나오면 그 구세주 이긴자를 만난 사람은 전부 다 구원을 얻게 되지만, 영생의 길을 가노라면 돌부리에 부딪쳐서 넘어지



구세주 조희성님

는 경우가 한 번, 두 번, 열 번 이렇게 되다가 나중에는 넘어지려야 넘어질 수 없는 완전한 자가 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분명히 여기에서 죽지 않는 영생의 말씀을 하고 분명히 여기서 성경적으로 죽지 않는 말씀을 하는가 하면 과학적으로 사람이 죽으려야 죽을 수 없는 비결의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영생 얻을 수 있는 방법을 아는 사람이고, 영생을 이룬 사람인 것입니다. 영생을 이룬 사람인고로 영생하는 비결의 말씀을 다양하게 성경적으로 불경적으로 철학적으로 또한 과학적으로 여러 가지 모양으로 영생의 학설을 논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숯덩이가 많이 있는 산이 있다면 그 숯 산에 전부 불을 붙이려면 처음에 숯덩이가 하나에 불을 붙이기

만하면 그 숯덩이가 아무리 많아도 불이 붙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승리제단에 계속해서 나오기만 하면, 완성의 이긴자 안에서 영생의 불이 붙어, 결국은 다 영생을 얻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끝까지 참고 견디기만 하면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 끝까지 참고 견디는 저력은 바로 희망과 소망과 영생의 확신 속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영생의 희망과 소망을 항상 가져야

그래서 영생의 소망과 영생의 희망과 영생의 확신을 가지면 저절로 감사하는 마음이 나오고, 저절로 기쁜 마음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슨 일을 당해도 기쁘고, 이런 일을 봐도 기쁘고, 저런 일을 봐도 기쁘고, 항상 기쁘고 항상 감사한 가운데서, 영생의 확신 속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마

음을 가지면 핏속에서 엔돌핀이라는 호르몬이 나오는데, 엔돌핀이라는 호르몬이 나오면 T림파구가 조성되는고로 병균을 제거할 뿐만 아니라 이제 암 세포도 제거해 주고 온 몸에 있는 병의 원인을 다 제거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영생할 수 있는 피로 바꾸어지면서 영생할 수 있는 몸으로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과학적으로도 틀림없는 영생의 학설을 말 할 정도가 되면 영생을 이룬 사람이 아니면 이것을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들이 영생의 소망과 희망을 잠깐잠깐 갖는 것이 아니라 항상 영생의 희망과 소망을 갖고 생활하려면 나는 하나님의 자식이라는 긍지를 항상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항상 그런 긍지를 가지면 영생의 희망과 소망과 영생의 확신이 다져지는고로 그러므로 끝까지 참고, 끝까지 견디는 그러한 저력이 생기는 것입니다.*

1991년 11월 8일 말씀 중에서
원현욱 기자 정리

영생을 목적삼고 사는 것이 최고의 행복

최고로 팔자가 좋고, 최고로 행복한 사람이 누구나 하면 바로 영생의 희망과 영생의 소망이 있는 사람이 최고로 팔자가 좋고, 최고로 행복한 사람이고, 최고로 쾌락을 누리는 사람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 사람들은 죽음을 목적삼고 살고 있는고로 삶에 희망이 없고, 괴롭고 허전하고 일을 해도 힘이 들고 같은 일을 반복해서하니깐 귀태증이 나서 독약을 먹고 자살하는 사람도 많이 있는 것입니다. 독약을 먹고 자살하는 그 이유가 어디 있느냐 하면 좀 오래 살아도 결국은 죽고 오래 안 살아도 결국은 죽으니깐 이제 “살자니 고생이요, 죽자니 청춘이다.” 하는 말이 있죠? 세상에 그런 말이 있는데 그게 다 이 세상 사람들이 자기네들의 마음을 그대로 그려낸 말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이제 그 반복된 생활을 해도 영생의 희망과, 영생의 소망과, 영생의 확신이 있다면 아무리 반복된 생활을 해도 재미가 있는고로 세상을 살아도 행복하게

즐겁게 사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돈만 벌면 편안하게 산다는 생각을 가지고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이제 편안하게 살만하면 병에 걸려서 죽는 사람이 있는데, 참으로 불쌍하고 비참한 삶이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분명히 여러분들에게 이 사람이 말씀 드리고자 하는 것은 우리 승리제단 식구들이 최고로 행복하고, 최고로 부러운 존재라고 하는 것을 이 사람이 말하고 싶은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매일같이 이 승리제단 나올 때에 영생을 목적삼고 나오는 거야? 죽으려고 나오는 거야? 영생을 목적삼고 나오는 거죠?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까? 어떻게 하면 이제 죽지 않고 영원무궁토록 사는 하나님이 되어서 그 천국 낙원에서 영원무궁토록 살까? 하는 마음을 가지고 승리제단 나오려고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고, 이 세상에서 가장 보람 있는 생활을 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이 사람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연재] 不老不死 어떻게 가능한가

피의 유전학적 내세관

에너지가 다양으로 집중하고 있는 곳이 물체이고, 에너지의 집중이 적은 장소가 공간

우주는 살아 생동하고 있다. 지구는 시속 18,000킬로미터의 속도로 운행하고 있고, 365일만에 태양 둘레를 돌고, 24시간 동안 한 바퀴 자전한다. 천하만물도 살아 있는 것은 곧 움직이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렇다면 거대한 바위와 쇠도 진동하고 있다는 말인가? 물론이다. 바위를 현미경의 배율을 고배율로 관찰해 보면, 분자 차원에서는 진동수가 10¹⁶헤르츠로써 움직이고 있고, 원자 차원으로는 10¹⁸헤르츠로써 움직이고, 원자핵은 대략 10²²헤르츠로 진동한다. 어느덧 고정되어 있다고 느껴지는 물체는 팽배박산되어 아지랑이와 같이 하늘거리는 미세한 에너지의 움직임(파동)만이 존재한다는 사실이다.

현대물리학은 양자론으로 모든 물질이 입자이면서 에너지 파동이라고 밝혔다. 현상계는 모두가 진동하는 실체이며, 서로 다른 종류의 파동으로 가득 차 있다. 현대물리학의 위대한 발견인 양자론의 결론으로서 모든 물질은 크든 작든 입자이면서 에너지 파

동이라는 것이다. 저 유명한 아인슈타인의 E=mc²의 공식은 이러한 관계를 잘 나타내준다.

최초의 추상화라는 타이틀을 남긴 러시아 태생의 화가 바실리 칸딘스키는 이러한 현대물리학의 초기 발견에 대하여 느낀 엄청난 충격을 다음과 같이 술회했다. “내 마음속에서는 원자의 붕괴가 전 세계의 붕괴였다. 완강한 벽이 갑자기 무너졌다. 모든 것이 불안하고, 불안전하고, 연약해졌다. 돌이 내 눈 앞에서 녹아서 공기가 되어도 나는 놀라지 않을 것이다.” 실로 우주의 모든 존재들은 진동하는 실체들이다.

진동하는 실체가 곧 에너지(힘)의 파동이고, 에너지의 파동 자체가 생명력이고, 그 생명력이 우주의 근원(신)적인 요소다. 빈 하늘조차도 음파나 전파 등의 에너지 장으로 가득 차 있다. 아인슈타인의 말을 빌리자면 에너지가 다양으로 집중하고 있는 것이 물체이고, 에너지의 집중이 적은 장소가 진공과 같은 힘의 장(場)일 뿐이다. 이것을 인간 몸의 원리로 해석해보면, 마음(진공)이든 피(물질)이든 생명(에너지)의 다른 표현일 뿐이다. 그렇다면 정신 혹은 마음 또한 일종의

심령현상의 과학적 기초 원리



에너지이다. 토벤(B. Toben)과 울프(Wolf)의 공저인 『시공간을 넘어』라는 책의 서문에는 “의식과 에너지는 하나이다”라고 써여 있다. 물질이 에너지의 다른 형태이듯 정신(의식) 또한 에너지의 다른 형태인 것이다. 그렇지만 정신은 물질과는 달리 자유로운 에너지 상태라고 할 수 있다.

심령현상, 오라(Aura)로 풀 수 있다

인간의 영력 혹은 정신력은 그런 의미에서 무한한 창조적 에너지 개념으로 인식해야 한다. 물질이 에너지이면 정신 또한 강력한 에너지이다.

이제까지 많은 사람들은 정신을 하나의 사고작용 정도로만 생각하고 정신이 진정한 에너지라는 것을 잘 몰랐다. 아직까지 인간의 정신력은 육체에 속박된 한계상황에 있음으로 크나큰 힘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 만약 물질을 에너지화하는 원자력과 같이 육체를 정신으로 승화시킨다면 거기서는 실로 어마어마한 에너지가 산출될 것이다. 다시 말하자면 인간의 구성요소인 삼위의 정·기·신혈을 정(精)의 낮은 차원에서 기혈(氣血) 신혈(神血)의 고차원의 단계로 끌어올릴 수만 있다면, 인간 사회의 총체적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획기적인 길이 열릴 것이다. 그러려면 인체에 대한 보다 과학적인 이해가 절실하다.

우리의 인체는 하나의 (전기)로 휩싸여 있다고 보아도 무방하다. 인체를 구성하는 세포는 원형질막의 바깥쪽에 플러스(+), 안쪽에 마이너스(-) 전기를 띠고 있다. 이 신체가 정지상태에서 전기를 띠고 있다가 자극이 가해지면 순간적으로 이 전위(電位)가 소실된다. 이 정지와 활동 사이에 생긴 전위를 ‘활동전위’라고 하며, 이것에 의해 세포는 활동하거나 전기적 자극을 전하기도 한다. 신경세포 등은 이 전위를 끊임없이 전달하여 감각기관이나 운동기관과 뇌 사이를 서로 연락하고 있다. 그밖에 혈액 중의 나트륨이나 칼슘 이온과 결합해서 생체가 활동하도록 해주고 있다.

이러한 전기적 작용이 생체로부터 흘러나와서 생체를 뒤덮고 있다. 생체를 뒤덮고 있는 역동적인 전자기장(電磁氣場)을 동양에서는 기혈로 이루어진 기체로 표현했다. 추상적인 기가 과학적인 전자기장이며, 이는 흔히 오라(Aura)로 통한다.

인체의 오라에 대한 흥미로운 일화

가 있다. 심령치료사, 영매, 대예언가로 불렸던 에드가 케이는 오라가 보이는 특이능력자이다. 어느 때와 같이 그는 산책 후 자신의 숙소가 있는 고층건물로 들어섰다. 그는 엘리베이터를 타기 위해 기다리고 있었다. 잠시 후, 엘리베이터가 서면서 문이 열렸다. 무심결에 타려고 했던 그는 엘리베이터 속에 있는 사람들을 본 순간 움직일 수 없었다. ‘어떻게 한두 명도 아니고 엘리베이터 안에 타고 있는 사람들 전부 ‘오라’가 없는 것일까?’ 그들은 하나같이 태연한 얼굴을 하고 있었으나 에드가는 섬찟한 마음이 들어 엘리베이터를 타지 않고 그냥 보냈다. 그리고 불과 몇 분도 지나지 않아 에드가는 조금 전 엘리베이터가 사고가 나서 그 안에 탄 사람 모두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다.

오라는 살아 있는 물체에서만 방출되는 에너지다. 그렇기 때문에 오라가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은 마음이 없다는 것이요, 이는 영의 죽음 곧 육체의 소멸을 뜻한다. 이 오라 현상이 신비한 심령현상을 밝히는 중요한 과학적 단서가 된다.*

김주호 기자